

#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바라본 성경이해



주도홍(백석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 I. 들어가는 말

개혁교회의 성경이해는 멀게는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와 가깝게는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종교개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종교개혁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한 마디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으로 구원과 삶의 유일무이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뿐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viva vox)으로서 실질적 말씀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죽어가는 율법의 말들을 뛰어넘는다.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의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믿음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약속하시고, 그로부터 확증한 언약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은 필히 요구되는 명료성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과 교리에 대한 확신을 준다. 루터는 말씀의 내적 명료성과 외적 명료성으로 구별하는데, 내적 명료성은 오직 성령께서 이해를 열어주실 때이며, 외적 명료성은 있는 그대로의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는 것으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며, 진리를 위한 시금석이 된다. 그러기에 성경의 그러한 권위와 해석은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성경의 그 어떤 선생이나 교황에 의해서도 아니

라는 사실이다.<sup>1)</sup>

이 논문에서는 16세기 이후 개혁신학의 신앙고백의 전통을 따라 개혁신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는가를 추적하려 한다. ‘개혁교회의 아버지’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Huldreich Zwingli, 1484-1531)를 시작으로 하여, 츠빙글리 신학의 독자적 구축으로 평가받는<sup>2)</sup>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셔(Martin Bucer, 1491-1551), 개혁신학을 체계화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과 함께, 1561년 『벨기에 신앙고백』, ‘영국 장로교의 아버지’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의 저서 『기독교교리 강론』, 1647년 영국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르기까지 개혁신학 전통을 따라 살펴보려 한다. 마땅히 함께 살펴야 할 개혁교회의 3대 신앙고백에 들어가는 1563년 나온 독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인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에서는 성경에 대한 입장을 독립적인 주제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1619년 예정교리를 중점적으로 다룬 『도르트신경』에서도 역시 성경관은 특별히 다루지 않고 있기에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 II. 츠빙글리

츠빙글리는 1523년 1월 29일 취리히에서 이뤄진 공개토론이 끝난 후 가톨릭교회의 콘스탄츠의 대주교 요한네스 파버(Johannes Faber, 1478-1541)과 함께 모여든 약 600명의 공중 앞에서<sup>3)</sup> 오

1) Krauser, Gerhard(Hrsg.), *Theologische Realenzyklopaedie*, 6. Bd.,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0), 70-71.

2) H. Henr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Gustav Adolf Benrath/ Carl Andresen(Hrsg.), *Handbuch der Dogmen- und Theologiegeschichte, Bd. 2, Die Lehrentwicklung im Rahmen der Konfessionalitaet* (Goettingen, 1989), 209-224.

3)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784.

직 ‘하나님께로부터 영감 받은 성경에 근거하여’(auf Grund der heiligen Schrift, die theopneustos – d.h. von Gott inspiriert) 67조로 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를 역사는 루터교의 1530년의 아우구스티나 신앙고백과 비교하며 ‘개혁교회 신학의 원형’으로 본다. 이 67조는 ‘개혁교회의 아버지’ 츠빙글리의 성경관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sup>4)</sup>

성경의 유일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깨달으며,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은 모든 기독교인의 삶과 구원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 67조에서 츠빙글리는 1-16조에 이르기 까지 성경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개혁교회 성경이해의 출발점이 된다 할 것이다.<sup>5)</sup> 이러한 츠빙글리의 신학은 츠빙글리 스스로 밝힌 바처럼, 요한 사도의 복음서와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sup>6)</sup> 츠빙글리는 중세교회의 성경관을 비판하며, 교회의 비준 없는 복음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조) 복음의 총체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참 아들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시며, 그의 무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시고 그 이행하심으로 모든 세대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2조), 이처럼 그리스도는 과거에 존재했던지, 지금 살아있든지,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이들의 유일무이한 영생의 길이 되신다.(3조) 고로 성경 외에 다른 글을 찾거나 제시하는 자는 영혼의 살인자이며, 도둑이다.(4조) 아울러 다른 교리를 복음에 동일하게 또는 복음보다 더 높게 두는 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로서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다.(5조) 오직 주의 복음을 순전히 전하는 일

4) [http://www.glaubensstimme.de/doku.php?id=autoren:z:zwingli:zwinglis\\_67\\_schlussreden\\_artikel\\_fuer\\_das\\_1\\_religionsgesprach\\_zu\\_zuerich\\_29\\_jan\\_1523](http://www.glaubensstimme.de/doku.php?id=autoren:z:zwingli:zwinglis_67_schlussreden_artikel_fuer_das_1_religionsgesprach_zu_zuerich_29_jan_1523)

5)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259-260.

6) Gustav Adolf Benrath/ Carl Andresen(Hrsg.), *Handbuch der Dogmen- und Theologiegeschichte*, Bd. 2, 175.

에 모든 크리스천은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할 것인데(14조),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불신으로 받아야 할 정죄를 가르치는 진리가 오직 복음이 명료하게 가르치기 때문이다(15조).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그 어떤 규범이나 가르침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함을 인식하게 된다(16조).

성경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입장은 첫째, 중세교회의 잘못된 성경관에 대적한 것으로 그 내용이 확실하고 엄하며 표현에 있어서는 날카롭고 강하다는 것이고, 둘째, 향후 전개되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성경이해에 대한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었다 할 것이다.<sup>7)</sup>

츠빙글리의 말씀 이해 가운데 외적, 내적 말씀의 이해는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외적(verbum externum) 그리고 내적 하나님의 말씀

---

7) Zwingli, Huldrych - Die 67 Artikel Zwinglis Artikel für das 1. Religionsgespräch zu Zürich, 29. Jan, 1523

Ich, Huldreich Zwingli, bekenne, daß ich diese nachher angeführten Artikel und Meinungen in der löblichen Stadt Zürich gepredigt habe, auf Grund der heiligen Schrift, die theopneustos - d.h. von Gott inspiriert - heißt, und ich anerbiete mich, gemäß β' der heiligen Schrift diese Artikel zu verteidigen, und mich, falls ich die heilige Schrift nicht recht verstünde, eines Andern belehren zu lassen, doch nur aus der heiligen Schrift.

1. Alle, welche reden, das Evangelium sei nichts ohne die Bewährung der Kirche, irren und schmähen Gott.
2. Die Summe des Evangeliums ist, daß unser Herr Christus Jesus, der wahre Sohn Gottes, uns den Willen seines himmlischen Vaters kundgetan und mit seiner Unschuld uns vom Tode erlöst und mit Gott allem menschlichen Geschlecht von Gott verheißt und auch geleistet.
3. Somit ist Christus der einzige Weg zur Seligkeit für alle, die je waren, sind und sein werden.
4. Wer eine andere Tür sucht oder zeigt, der irrt, ja, der ist ein Mörder der Seelen und ein Dieb.
5. Deshalb irren alle diejenigen, die andere Lehren dem Evangelium gleich oder höher stellen; sie wissen nicht, was Evangelium ist. (중략)
14. Darum sollen alle Christenmenschen ihren höchsten Fleiß darauf verwenden, dass überall allein das Evangelium Christi gepredigt wird;
15. denn im Glauben besteht unser Heil und im Unglauben unsere Verdammnis; alle Wahrheit ist nämlich klar in ihm.
16. Im Evangelium lernt man, dass Lehren und Satzungen der Menschen zur Seligkeit nichts nützen,

(*verbum internum*)에 대한 이해는 츠빙글리에게도 1524년 8월부터 고전 2:15을 해석하면서 나타나는데, 요 6:44와 롬 10:17을 근거로 외적 그리고 내적 말씀은 서로를 채워준다. 보이는 말씀인 성찬에서도 입으로 먹는 것과 신앙으로 먹는 것은 대적 관계가 아닌 서로를 필요로 하는데, 외적 말씀은 엄격하게 볼 때 내적 말씀에 시간적으로 앞선다. 한 예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의 몸과 피와는 일단 구별이 된다. 입으로 먹는 것과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존(*praesentia corporalis Christi*)과는 구별이 된다. 성령을 통해 성도의 마음에 부여된 내적 말씀이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그렇지만 츠빙글리에게 말씀과 성령은 성령이 제약 없는 우선권을 갖는데, 그렇다고 외적 말씀이 결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성령은 자신의 뜻대로 신앙을 주시며, 듣는 이를 새롭게 하신다. 더욱 분명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이 성령이 뜻대로 역사하시어 믿음과 은사를 내리신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성도의 믿음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이라는 것이다. 외적 말씀은 말씀과 사건의 복사(*imago verbi et rei*)이고, 내적 말씀은 그 사건의 원형(*idea rei*)인데, 성경과 설교는 인식의 근거로서 성령의 사역이 결정적이다. 츠빙글리가 말하는 내적 말씀은 결코 주관적인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로 자신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현존(*die gnaedige praesentia Dei*)이 성도의 믿음의 전제이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현존의 전제이지 않다는 것이다.<sup>8)</sup>

8)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 262-265.

### III. 부써

부써는 1533년 바커(Bernhard Wacker)에 반해서 쓴 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7 조항’ *Vom wort gottes 7 artickel* 을,<sup>9)</sup> 그리고 ‘외적 그리고 내적 말씀’ *Über dem eusserlichen und innerlichen wort*을<sup>10)</sup> 발표한다.

부써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7조항’에서 성경에 대한 입장을 말한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설교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결코 설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들에게 삶에 경고를 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들의 마음에 심겨진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전파될 때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때와 장소에서만 신앙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신앙은 주어지지 않기에 경건도 영성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부써의 입장이다. 부써에게 있어 규범이 되는 성경은 이해에 있어 “밝고 명료하며”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하다. 그렇다고 부써를 성경문자주의자로 볼 수 없는데, 복음은 그 성경 중에서 기등과 같은 것이다.<sup>11)</sup>

부써는 외적, 내적 말씀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은 복음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명료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양육시킨다는 것이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는 내적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농부가 씨

9) Martin Bucer, *Martini Bucer Opera Omnia, Series I, Deutsche Schriften*, (Guetersloh, 1978), 426.

10) Martin Bucer, *Martini Bucer Opera Omnia, Series I*, 427-429.

11) Gustav Adolf Benrath/ Carl Andresen(Hrsg.), *Handbuch der Dogmen- und Theologiegeschichte*, Bd. 2, 211.

를 심고, 물을 주지만, 그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농부의 행위는 외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적이라 말한다. 부씨는 여기서 고전 3:7의 말씀을 가져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 부씨는 바로 이 대목에서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문과 성경 주석을 가져오는데, 부씨에게 있어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요성과 아울러 부씨의 외적, 내적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왔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설교자의 행위를 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설교에 있어 사역을 내적으로 이해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를 부씨가 가져오고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2)</sup> 이런 맥락에서 부씨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부씨의 바로 이 부분이 루터를 따르기보다는 츠빙글리의 편에서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sup>13)</sup>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는,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 그 성경의 충분한 권위는 성경 스스로 갖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조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말은 그의 말씀의 주로 머무신다는 의미이며, 그의 말씀은 단지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부씨에게 있어 강단에서 선포된 옳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묶어져서 선포되기에, 우리는 믿는데(credimus),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은 신자들이(fideles)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12) Martin Bucer, *Martini Bucer Opera Omnia, Series I*, 429, Jnn disem sicht nun ein jeder wol, das der h. Augustinus den dienst des predigers eusserlich erkennt vnd des vatters lere innwendig; wer dan nun sagt, das das eusserlich wort Gottes on das innerlich bei dem menschen nichts zur seligkeyt ausrichte, der redet christlich vnd recht, vnd solle das niemand widersprechen.

13) Gustav Adolf Benrath/ Carl Andresen(Hrsg.), *Handbuch der Dogmen- und Theologiegeschichte*, Bd. 2, 211.

이다(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 이러한 부씨의 성경 이해는 성경의 권위를 내세울 때 이성적이며 성령적 근거를 갖는데, 이러한 부씨의 성경관이 정통주의로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본다.<sup>14)</sup>

#### IV. 칼빈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6-9장에서 성경을 주제로 다루는데, 라틴어 *scriptura*로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verbum Dei*)이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한다. 칼빈에게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verbum Dei*)으로, 율법(*lex*)과 예언(*prophetia*)과 복음(*evangelium*)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annuntiatio*)이다. 거기다 설교(*praedicatio*)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일컬어진다.<sup>15)</sup> 칼빈에게 있어 성경의 영감은 그 어떤 형태의 교리로 발견되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으로서 절대 진리이며, 하나님 자신의 살아있는 이미지이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령의 기관(*Organ*)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그 성령에 의해 틀림없게 그리고 순전하게 성경을 기록했으며, 성경 안에는 온전한 권위를 가진 하늘의 교리가 있다.<sup>16)</sup>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노력했다. 종교개혁 시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제자요 동역자인 필립 멜랑흐톤(*Philipp Melancthon*, 1497-1560)의 주된 수고에 의해 1530년에 세상에 공포한 루터교회의 『아우구스타나 신앙고백』(*Confessio*

14) Gustav Adolf Benrath/ Carl Andresen(Hrsg.), *Handbuch der Dogmen- und Theologiegeschichte*, Bd. 2, 226-227.

15) Wilhelm H. Neuser(Hrsg.),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Calvin as Confessor of Holy Scripture*, (Grand Rapids, Michigan, 1994), 52-54.

16) I. John Hesselink,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7), 56.



Augustana)과<sup>17)</sup> 다르지 않게, 6년 후 역시 칼빈은 1536년에 출간한 총 6장으로 된 초판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독립적 주제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sup>18)</sup> 1535년 8월 23일<sup>19)</sup>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에게 쓴 이 책의 헌정사에서 칼빈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크게 득세를 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추방되고 흩어져서, 비록 소멸까지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려져 있고 묻혀져 있으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sup>20)</sup> 성경의 모든 규칙은 명백한 믿음의 규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1)</sup> 칼빈은 중세교회에 참된 경건이 없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2)</sup> 칼빈은 교부들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루어진 수많은 교회의 제도들, 교회법들, 그리고 교리적 결정들은 “사변적 신학”으로 정의하며 “한계를 망각한 것”으로 정죄했다.<sup>23)</sup>

칼빈이 1년 후 1537년 제네바교회 성도들을 위해 출간한 33개의 주제로 아주 간략하게 저술한 소책자 *Instruction in Faith*(1537)에서도 역시 독립적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묘사가 보이

17) Leif Grane(ed.), *Die Confessio Augustana*, (Germany: Goettingen, 1980). 이 신앙고백에서 총 28장으로 신앙의 주요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18)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1536년),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8). 제1장 율법, 제2장 믿음, 제3장 기도, 제4장 성례, 제5장 거짓 성례, 제6장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그리고 정치 조직을 다룬다.

19)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1536년), 30. 『기독교 강요』, 초판은 1535년 8월 23일 헌정사를 쓰고, 1536년 3월에 스위스 바젤에서 출판된 것이다.

2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1536년), 47.

2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1536년), 49.

2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1536년), 51.

2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1536년), 57-58.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귀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한 것에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것도 교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 위에 그리스도 외에 어떤 주인들을 세움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이 경계 안에 머무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한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퀘변론자의 퀘사에 의해 더럽혀지고 변론자들의 언쟁에 말려드는 것을 혐오했습니다.(58)

지 않는데,<sup>24)</sup> 『기독교 강요』 초판을 요약한 것으로 이해할 때 그 내용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거기다 『기독교 강요』 초판은 1529년 루터의 『소고리문답』의 형식을 따랐기에 역시 성경을 주제로 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sup>25)</sup> 1551년 칼빈은 공관복음 주석 서론에서 복음에 대해 말하며 구약의 선지서와 분명하게 구별함을 본다. 곧 칼빈은 신약만을 복음이라고 이해하며, 구약까지를 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정확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게 하여, 우리를 육신의 썩어짐에서 구해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복음은 흔히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복된 삶으로의 회복이라 불리기도 한다. ...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복음이라는 말은 신약에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든 세대에 차별 없이 적용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일꾼들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스도께서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눅16:16)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가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한 때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sup>26)</sup>

---

24)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1537), Paul T. Fuhrmann, Translator and Editor,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92).

25) Martin Luther, *Der Kleine Katechismus Doktor Martin Luthers*,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1984); Mark A. Noll(ed.), *Confessions and Catechisms of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Michigan, 1991), 59-80.

26) 요한 칼빈, 『칼빈주석 공관복음』,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1), 14-15.

그럼 칼빈에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해 미리 했던 말들을 복음서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때 온전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구약 폐기론자들을 광신자들이라 정죄한다.<sup>27)</sup>

## V. 『벨기에신앙고백』

저자 귀도 드 브레(Guido de Bres, 1522-67)의 프랑스어로 기록한 개인 신앙고백(Confession de Foi des Eglisee Reformees Walllonnes et Flamandes)이었다가 1619년 도르트 총회로부터 개혁교회의 공적 신앙고백으로 공인되었던 『벨기에 신앙고백』(1561년)은 2년 앞서 형성된 프랑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Confession de Foy)인 『갈리아 신앙고백』(Gallican Confession, 1559년)에 많이 의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sup>28)</sup> 『벨기에 신앙고백』은 총 3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제3장부터 제7장 까지 간단명료하게 성경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벨기에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거룩한 것이라 일컫는다.(3장) 이 거룩한 성경은 66권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는데, 정경이라 부르는데, 외경은 포함시키지 않는다.(4장) 성도의 믿음의 규범인 이 성경은 교회가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성

27) 칼빈, 『칼빈주석 공관복음』, 15. 하늘의 지혜를 담은 진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헛된 말을 하는 일부 광신자들과는 달리, 이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그들의 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기할 의도나 목적이 결코 없었다. 도리어, 그들은 그들의 손가락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했던 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에 복음을 하나님이 전에 하신 약속들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울 때에만 온전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28)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 320-323;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179-180.

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다르게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 한다.(5장) 『벨기에 신앙고백』은 특별히 외경에 대해 정경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 구별하는데, 이는 중세 교회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경의 내용이 정경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혀질 수 있고,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외경은 기독교 신앙에 그 어떤 능력이나 효능을 주는 일에는 거리가 멀며, 정경의 권위까지를 손상시키면서 까지 외경을 가져올 필요는 더구나 없다는 입장이다.(6장)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예배를 위해 충분하고 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천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에 더하거나 빼는 행위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 정경과는 그 어떤 거룩한 인간의 규칙, 판결, 글이라도 결코 동일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7장) 성경만이 인간의 신앙을 규정하며 기초를 놓는다.(5장)

## VI.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당시 종교개혁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캠브리지대학교의 성 존스 칼리지(St. John's College)의 청교도 교수였다가, 장로교의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므로 영국 국교회 성공회와의 교리적 갈등으로 1570년 칼빈의 후계자 베자(Theodor Beza, 1519-1605)가 있는 제네바로 피신하여 제네바신학교에서 베자의 통역에 힘입으며 1572년 4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 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던, ‘영국 장로교의 아버지’ 카트라이트<sup>29)</sup> 기록한 『기독교교리 강론』은 제12장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와 제13장 “하나님의 말씀의 구성과 일반적인 행위 언약에 대하여”에서 총 38항목으로 성경에 대해 쓰고 있다.<sup>30)</sup> 그 중

29) 참조.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 308-318: “제28장 토마스 카트라이트”;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ed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204.

30) 토마스 카트라이트, 『기독교교리 강론』, 김지훈 역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4).

성경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12장에 제시한다.

제12장은 딤후 3:13-17으로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받아들인다. 첫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둘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곧 성경은 인간 구원의 수단과 관련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66권은 거룩한 사람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신적 영감으로 기록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 자체로, 그 자체에 의해서 완전하고 거룩하며,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교훈을 제시한다. 성경 66권은 기록자의 여러 가지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일치와 화합을 보인다. 성경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고 실용적이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장엄함과 권위가 빛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 한다.

외경은 로마교회가 구약에 속한 신적인 책들이라고 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다. 둘째, 구약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유대인들이 외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외경을 읽고 해석하지 않았다. 넷째, 사도들 이후 초대교회가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회자는 성경이 말하는 목회의 모든 의무를 철저히 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목회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힘써 전해 충분한 교훈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인 성경은 풍부하게 구원을 가르치기에 성도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하며, 그 어떤 다른 것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를 공급하는 성경 외에 사람들의 전통, 공회의 규범들, 교황들의 결정들, 심지어 교부들의 글들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규범이기에, 성경은 사람들과 천사들의 모든 판단과

말을 검증하고 시험하는 “강철 같은 규범”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해석은 종종 어렵게 보이지만, 또한 그렇게 로마교회가 가르치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한다.<sup>31)</sup>

제13장에서 카트라이트는 성경을 보다 깊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루는데, 갈라디아서를 가져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려 한다. 성경은 행위교리와 언약의 은혜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은혜교리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러나는 복음이라고 일컫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행위언약을 보여주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은혜언약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율법은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발견하게 만들며, 우리의 교만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받아들이게 한다. 곧 “율법은 은혜로 인한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은 인간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인간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율법은 사람들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경찰과 수비대 같은데(갈 3:23), 율법은 “은혜의 약속을 얻게 하는데 특별한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율법의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박차를 가하며,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빛의 역할이다.

“영국 장로교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카트라이트의 성경이해는 영국 장로교에 나름의 길을 제시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로부터 100여년 후 1647년 영국에서 발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얼마나 어떻게 성경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31) 카트라이트, 『기독교교리 강론』, 86-92.

## V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 신앙고백의 최정상에 위치한 1647년 영국에서 발표된 총 33장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원론과 예정론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청교도들로서는 스승과 제자관계인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 그리고 제임스 어씨(James Usser, 1581-1656)를 들 수 있다.<sup>32)</sup>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처음부터 우선적으로 제1장에서 10항에 달하여 집중적으로 성경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은 문2에서 문6까지 성경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은 문2와 문3에서 성경에 대하여 말한다.<sup>33)</sup> 먼저 대소교리문답이 말하는 성경이해에 관해 언급할 것인데, 『대교리문답』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선포하며,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계시를 주는 것은 오직 성경과 성령이라 말한다. 이 성령이 어떻게 성경과의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지 언급하지 않는다. 『소교리문답』은 제2문에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서로를 채워주고 있다 할 것이다. 『소교리문답』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문3),<sup>34)</sup> 『대교리문답』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선포한다(문3). 역시 두 교리문답은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다. 『대교리문답』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성경 자체가 존엄성, 순수성, 일치성을 통해 하나

32) 김홍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의 비교”, 『한국개혁신학』 40호(2013), 22-26.

33) 김의환 (편),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17-171.

34) 대교리문답 문5도 같은 내용이다.

님의 말씀임을 나타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보다 신앙 고백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17세기 영국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신앙과 신학을 제시한다. 자연계시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기에,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지만, 계시 기록은 이제 정지되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여기서 다른 외경이나 가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하기에 교회에서 인정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성경의 권위는 오직 진리 자체이신 성경이며,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만 둔다. 그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교회의 증거에 따라 성경을 높이 평가하는데, 내용의 고귀성, 교리의 유용성, 문체의 장엄성, 일치성,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에 관한 길의 충분성, 우수성, 완전성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를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 증거 하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다. 그 어느 때나 그 어느 누구라도 가감할 수 없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구원의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인식하는 데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학식을 떠나 옳은 방법을 따르면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세세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sup>35)</sup>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논쟁은 최고의 심판자인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에, 성경을 모두가 자유로이

35) 김의환 (편),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20.



읽을 수 있도록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성경해석의 법칙은 종교개혁의 성경해석 원리 “성경 스스로가 해석한다.”(sui ipsius interpres)을 가져오는데, 보다 더 명백하게 이해되는 성경구절이 다른 구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VIII. 맺는 말

지금까지 개혁교회의 신앙전통 안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더 많은 시간과 자료를 동원해서 보다 넓고 깊게 살펴야 했지만, 나름의 제약 상 어쩔 수 없음을 먼저 밝혀야 하겠다. 그렇다고 개혁교회의 성경이해를 필자가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보다 훌륭한 글들이 부족을 메꾸어 줄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 서클 안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성경이해는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개혁교회의 전통 안에서 도 성경에 대한 공통의 이해는 많은 부분에서 알려져 왔고, 필자의 소논문에서도 발견된다. 차이점을 들추어 낼 것인데, 특히 얼핏 보기에는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츠빙글리의 외적 말씀과 내적 말씀 그리고 부씨의 내적 외적 말씀은 루터의 성경의 외적 명료성과 내적 명료성과는 그 표현에 있어 유사하지만, 차이를 보이는데, 루터의 내적 명료성은 오직 성령께서 이해를 열어주실 때이며, 외적 명료성은 기록된 성경 그 자체로서 명료하게 해석하는 것인데, 츠빙글리의 외적 말씀은 한 예로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이며, 내적 말씀은 그 떡과 포도주가 말하는 바 상하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이다. 츠빙글리의 외적 말씀은 사건의 복사이고, 내적 말씀은 그 사건의 원형이라는 점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또한 부씨의 외적 말씀은 제3의 이해를 주는데, 설교자는 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내적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부씨는 자신의 이해가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그런데 부씨에게 성령의 사역은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하겠다. 칼빈은 성경이 성령의 기관인 기록자들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 오류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에,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 자신의 살아있는 이미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오직 신약만이 복음이라 하며, 구약까지를 복음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부정확한 것으로 비난한다. 구약은 하나님이 미리 그리스도에 관해 하셨던 말들을 복음서의 그리스도에 게서 찾을 때 온전한 유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폐기론자들을 광신자들이라고 비난한다. 카트라이트는 청교도적 성경읽기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카트라이트는 율법의 두 가지 용도를 밝히는데,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계시를 주는 것은 성경과 성령이라고 함께 일컫는 것을 주목하게 한다. 이 성령이 성경과 어떤 관계에서 구원의 계시를 주는지에 대해서 말이 없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점도 잊지 않는다. 아울러 청교도적 성경이해를 제시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경건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제시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모두가 자유로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제시한다. 아울러 종교개혁의 성경해석 원리 ‘성경은 스스로 해석한다.’를 제시하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데, 보다 명료한 성경구절이 다른 구절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교도주의의 실질적 성경해석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